# 반송 및 다행송 만들어 가꾸기

이 상 웅 / 향촌조경수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행정3리 250
문의처 (0339) 353-0747

건강하고 수형이 좋은 나무는 어느 수종이건 아름답기 마련이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무의 종류마다 아름다움을 달리하며 이용면에서도 다르고 저마다 특색이 있지 않은가?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면에서 그중 가장 중량감 있으며 운치 있는 나무는 역시 잘생긴 소나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 수원 지지대 고개의 몇백년 늙은 노송들, 충북 속리산의 정이품 소나무 아산 현충사의 잘 자리 잡힌 반송들, 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왠지 우리 조상들이 뇌리에 스쳐가며 숭고스럽기도하고 그 기백이 당당하게 보여진다.

그리하여 선조들은 동양화를 그릴 때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는 산수화를 즐겨 그렸으며, 신선들은 소나무가 있는 곳에 찾아 온다하여 노송을 아끼고 사랑한것이라고 생각된다.

바닷가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해송은 곰솔 혹은 흑송이라 불리우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소나무하면 수피가 붉은 적송을 말한다.

지표면에서 부터 굵은 가지가 갈라지는 반송, 여러개의 붉은 줄기로 이루어져 수형을 만드는 다행송, 흔히 강원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수피가 얇고 붉은 조림 수종으로 이용되는 강송(춘향목)들은 소나무(적송)의 변종이라 하겠다.

이들의 관상가치는 각기 그들마다 특징이 있어 그중 어느 나무가 크다 적다 할 수 없겠으며 수형과 용도 그리고 감상하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달리하는 것이다.

소나무 재배에서 필자가 기술하고자하는 바는 소나무(적송)을 반송의 수형으로, 강송을 다행송의 수형으로 유도하는 방법이다.

반송 및 다행송은 어린 묘목부터 전정을 하여주지 않는다 하여도 여러개의 나무 줄기가 지표면에서 부터 발생하여 자라며 자연적으로 가지의 생김새가 섬세하고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으나 문제는 생산 재배 면에서 수형을 같게 혹은 더 이상의 예술적으로 재배 하려면 많은 정성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다.

반송 및 다행송 종자를 채취해서 파종하면 발아하여 자라는 묘목은 반송 및 다행송이 되어야 하겠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순수계열의 묘목이 15~20%뿐이 발생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접목묘를 생산하여 재배하게 되는데 이에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반송 및 다행송의 가장 중요한 감상 부위는 지표면에서 여러갈래의 줄기가 우산살 형식으로 갈라져 자란 곳인데 묘목 생산시 아무리 저접을 하여도 나무가 성장함에 따라 대목 부

위가 지표면으로 노출된 후에 줄기가 발생한 모양으로 되어 원래 그들 고유의 모양이 불가능 하게되며, 재배 생산 면에서 접목묘는 줄기 및 가지가 너무 많이 발생하여 수고생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회양목의 수형처럼 지표면에 가라 앉게되어 예술적인 수형의 나무를 생산 하는데 너무 많은 기간이 요구 된다.

그러므로 반송을 재배 할 때에는 지표면에서 3~7개의 줄기만을 남기고 나머지 가지는 전정하여 수고생장을 촉진 시킨 후 수관폭을 발달 시키는 것이 수형상으로 보나 생산 속도로 보아 유리한 방법이라 하겠다.

소나무의 가격 결정은 강송이냐 적송이냐 혹은 어느 계통이냐가 문제시 될수 없으며 특히 다른 나무에 비하여 그 예술성의 가치 즉 수형과 규격에 의하여 결정 된다하는 사실을 동감해야 할것이다.

소나무의 재배 적지는 배수가 잘되며, 태양광선이 많은 곳으로 토성은 가리지 않으나 묘목을 옮기고 분뜨기를 고려하면 참흙 혹은 질참흙 땅이 알맞다.

## 1. 종자의 파종 및 묘목생산

소나무의 종자는 종자 채취 직후 노천매장을 하지말고 파종시기에 가서 그대로 기건저장 하였다가 파종하여도 되겠으나 발아세를 높여 균일한 묘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파종 1개월 전쯤

종자를 축축한 모래와 섞어 노천매장을 한후 1m의 묘판에 흩어뿌림 한 후에 눈금이 1cm×1cm인 체로 흙을 쳐서 1cm가량 덮은 후 로울러로 흙을 진압하여 주고 짚을 덮는다.

짚 덥기는 땅이 안보일 정도로 실시하며 덮은 짚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말둑을 박고 나이롱 줄을 띄워 놓는다.

파종 1개월쯤 지나 발아 상태를 관찰하여 종자가 발아되어 흙을 쳐들고 나오게 되면 덮은 짚을 완전히 걷는다.

짚을 걷은 후의 주의 사항은 참새들이 모여들어 싹 터오르는 종자의 머리를 전부 따 먹게 되므로 짚을 걷는 즉시 새가 침입을 못하도록 댓가지를 꽂고 차광망을 씌워준다.

파종한 종자가 전부 발아되어 쓰고 나온 종자의 껍질이 전체의 1/3가량 벗겨지게 되면 차광망을 벗긴다.

그 후에 제초관리만 잘하여 주면 묘목이 생산 된다.

다만 거름주기에 대하여 주의할 점은 중간거름 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거름주기가 잎거름 주기이면 좋겠으나 특히 소나무는 화학비료를 싫어함으로 1년생 묘에 덧거름을 주다가 비료가 잎에 묻

으면 어린 묘를 전부 죽일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나무의 어린묘 생산에서는 파종전 완숙퇴비를 충분히 넣고 화학비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반송 및 다행송으로서의 조형재배

소나무는 새움트기(맹아력)가 매우 좋지 않은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큰 소나무중 잎이 없는 묵은 가지에서 새순을 내는 것은 매우 불가능 하지만 잎이 있는 상태에서 전정을 하면 어느 곳이든 잎의 묶음 속에서 새 눈이 발생하여 새 가지가 나오게 된다.

이러한 소나무의 특성을 이용하여 어린묘목 부터 전정에 의해 새 가지를 발생시켜 적송은 반송의 형태로 강송은 다행송의 형태로 수형을 교정한다.

전정하는 방법은 파종연도의 7월 중순경 어린묘가 성냥개피 정도로 자랐을때에 소나무의 잎을 6~9개정도 남기고 위를 잘라 주면 남긴 잎 사이에서 새 가지가 발생 하게되어 그해에 어린 밤송이처럼 성장하게 된다.

그 1년생 묘목을 굴취하여 식재한후 2년생으로 기르면 여러개의 새순이 가지와 줄기의 형태로 구분되어 성장하게 된다.

3년생 묘목으로 들어 가는 해의 봄에 밑으로 처진 가지와 수직으로 선줄기를 전부 매우 가는 반생 철사로 잡아 매주어 늘어진 가지가 줄기로 자라도록 유도하는 동시 줄기를 3~5개 정도로 남기고 너무 세력이 약한 가지는 제거하고 세력이 너무 강한 가지는 전정하여 세력을 줄여 줌으로 여러개의 줄기 굵기와 길이가 거의 같도록 유도한다.

한 나무에 대한 줄기의 갯수는 가급적 3,5,7의 홀수로 세우는 것이 좋으며 3~7개의 줄기로 한정 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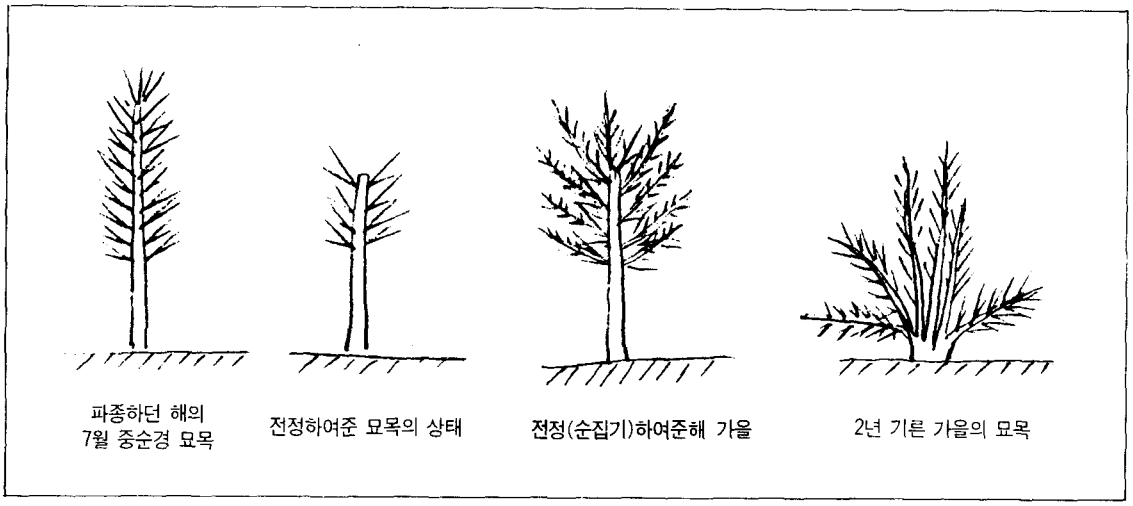
줄기의 발생 및 유도 관계를 도면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2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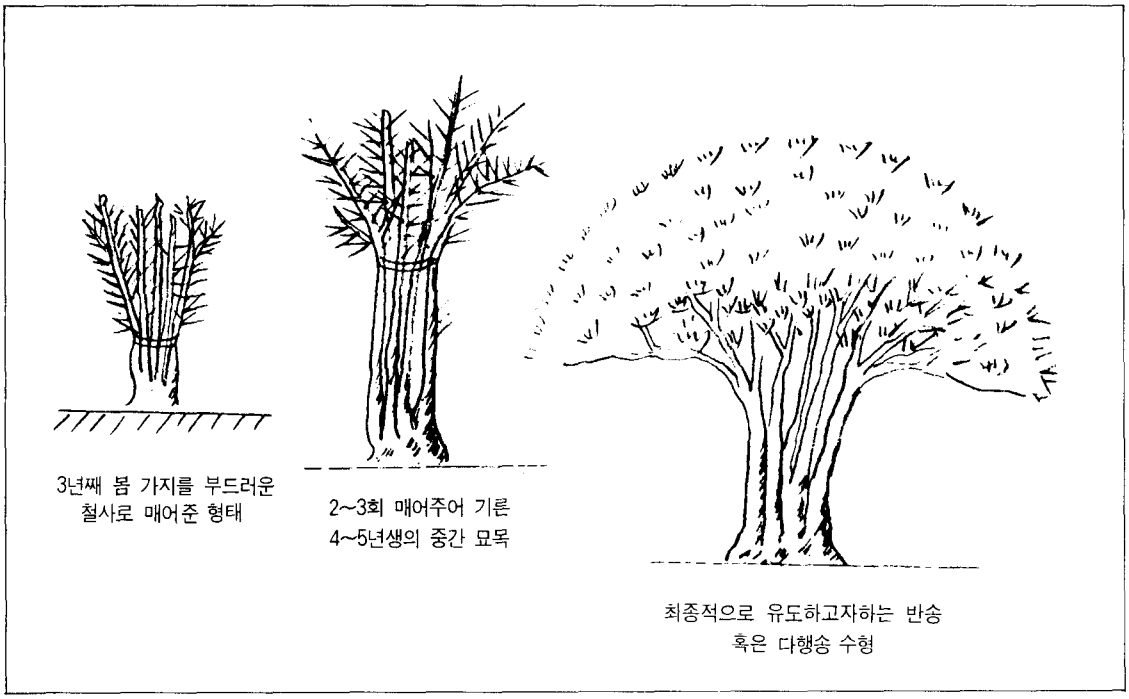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수형으로 유도하여 교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재배를 하여야한다.

지표면에서 분배된 줄기 배열은 그 초점에서 부터 정리되어 사방으로 질서를 유지하며 퍼져 올라 가도록하고, 그 줄기의 굵은 정도가 균일해야 할것이므로 세력이 너무 왕성하게 자라는 줄기는 전정을하여 세력을 줄이고 세력이 약한 가지는 전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자연스러운 줄기 및 가지를 만들려면 가급적 정순에서 발생하는 곧은 줄기보다 바퀴살 가지를 2개 정도로 남기고 나머지 가지를 제거하여 줄기가 되도록

(그림1)






(그림2)

유인하여 가며 수형을 잡아 가는것이 예술적인 소나무 작품을 생산하는 관건이라 하겠다.

재배상으로 천연생 반송 및 다행송을 재배한다 하여도 명품의 예술적 소나무가 되려면 매년 손을 보아 가지를 정리하며 재배 하여야 하지만 순수한 계통반송 혹은 다행송 보다는 아무래도 손을 많이 써야함은 사실이다.

위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반송 기르기는 수관폭의 생장이 문제가 되지않고 수고생장이 더 중요하다 하는 의미이며 나무의 줄기를 사방으로 고르게 분포시키고 줄기의 굵기가 거의 같게 유도함은 물론 지표면에서 줄기의 퍼진 형태가 한곳의 초점으로 모여준후 점차적으로 지상에 올라감에 따라 벌어져야함을 잊지 말자.

위와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수관폭에 관하여는 전혀 신경을 쓰지 말고 수고가 70~80cm가량 재배하였을 때에 묘목 과정이 완성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이르려면 파종에서 시작하여 5~6년이 소요 되며 이때까지의 재배가 매우 공이 많이 든다. 그후 부터는 위를 계속하여 우산을 편형으로 위를 화양목 전정하듯이 깍아주면 수관이 자연적으로 형성된다.

묘목 과정을 마친후 비배관리를 잘하여주면 1년에 수관폭 40cm가량을 발달시킬수 있으므로 4년가량 재배하면 수관폭 1.5m가량의 반송을 생산해 낼 수 있다.

본 수종의 재배는 재배기간이 긴 이유로 나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좁은 면적에 취미삼아 기르다 보면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관상수 기르기가 될 것을 확신하며 세월의 흐름에 비례하여 나무는 더욱 명품이 되므로 부업 및 농촌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각광받을 것을 확신한다.